

---

- 2022년 제2차 -

# 대구광역시의회 의정비심의회 회의록

---

- 일 시: 2022. 10. 4.(화) 14:00 ~ 15:20
- 장 소: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2층 상황실
- 안 건: 2023~2026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 참석위원: 9명
  - 위원장(우성대)
  - 위원  
(석진욱, 은재식, 이상준, 이정미, 이준화, 임성수, 지성옥, 최종민)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의정비심의회)

**<위원장 인사>**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님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다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li> <li>○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li> <li>○ 1차 회의에 이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금액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 우리 심의회는 지난 1차 회의 시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월정수당 지급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1.4%) 내 지급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li> <li>○ 금일 회의에서는 월정수당 지급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내에서 얼마나 반영할 지와 4년간 매년 인상을 할 것인지, 격년으로 인상할 것인지 등 지급방법에 대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li> <li>○ 월정수당 지급액이 결정되면, 다음 안건인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최종 확정하고 금일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li> <li>○ 우선 안전심의에 앞서 지난 1차 회의 때 논의되었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li> <li>○ 논의 전에 대구시 의회협력팀장으로부터 주민의견수렴 실시와 관련하여 타시도 현황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li> </ul>
-----	--

**<주민의견수렴 실시 관련 설명>**

의회협력팀장	○ 주민의견수렴 실시 관련 절차 및 일정 등 설명
--------	-----------------------------

**<주민의견 수렴 실시 여부 결정>**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li> <li>○ 대구시의 설명처럼 공청회 등을 실시하기에는 기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각계 각층의 대표성이 있는 분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내로 결정하는 경우 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구시 의견을 존중해 주민의견수렴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li> </ul>
-----	--

○○○	<p>○ 아니요. 그런 부분은 부분 지난번 1차 회의 때 나온 얘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공무원보수인상률 내로 나오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여지가 있었지 않습니까</p> <p>○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앞서 아까 보고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세종은 있는데, 다른 데는 10월에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시도는 아예 주민 의견 수렴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건가요?</p> <p>○ 15개 시도는 10월말에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1차회의 조차도 안했으면 그렇다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p>
의협위원장	<p>○ 대부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에서 결정할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 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p>
○○○	<p>○ 그래서 다른 시도는 다른 시도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물론 투표를 해서 공무원보수인상률 밑으로 하는 건 결정이 된 부분들이니까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p> <p>○ 저는 아까 말했듯이 다른 시도에 아직까지 회의조차도 안했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제 두 번째하면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 최소한 이런 공청회라도 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다른 분들도 의견을 내주시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p>
위원장	<p>○ ○○○ 위원님의 말씀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p> <p>○ 우리 ○○○ 말씀해주시죠</p>
○○○	<p>○ 저는 지난번 회의에서 일단은 공무원 보수에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건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공청회 이렇게 하니깐 지금 요즘 나라꼴이 정말 물고 뜯고하는 이러한 판국이고 뭐 하나 긍정적으로 봐주는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순리대로 따라갔으면 합니다.</p>
위원장	<p>○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p>

○○○	<p>○ ○○○입니다. 저는 공청회는 필요하다는 의견이구요</p> <p>○ 반대한다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특히 이제 순응한다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의회의 발전이나 의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의정비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의회의 기능이 잘되기 위한, 발전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더 원활하게 가려면 지금 당장은 거칠 수도 있고 또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좋은 기능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p> <p>○ 의회에서 기금사업 5개 정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고민하는 과정으로서 공청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p>
○○○	<p>○ ○○○입니다. 저는 지금 공청회나 이렇게 필요한가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p> <p>○ 지금 공청회를 실시하는 목적이 보수인상률에 대한 거잖아요</p> <p>○ 목적은 의정을 제대로 하는지 의원들이 제대로 하는지 그걸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사실 저희도 일반적으로 국회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인상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라는 사실 여론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거기에 저희가 낸 세금을 예산으로 그런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입니다.</p> <p>○ 만약에 의정을 제대로 하는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p> <p>○ 차라리 그런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의정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그런 제도를 추후에 만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이 목적 자체는 보수인상을 얼마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적이라면 공청회나 이런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p>
○○○	<p>○ 저는 ○○○ 의견하고 좀 다른데요. 의정비 월정수당 결정시 고려할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수가 있죠.</p> <p>○ 주민 수는 지금 계속해서 남구나 서구 뭐 이런 지역은 소멸지역으로 되어있고 청년들이 유출되는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고,</p> <p>○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재정능력하는 거는 지금 민선8기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재정 통폐합을 해서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올인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회를 계속 심의하는 집행부가 견제를 해주고 심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p>

	<p>○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은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딱 수치는 뒤에 자료는 좀 나와 있지만 이 수치가 가장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의정 활동들의 평가가 연동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방금 말씀하시는 보수 인상률만 기준이 아니다. 이거는 공청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얼마나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지 또 이런 보수가 적당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논의가 공개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객관적인 기준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가 다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지금 월정수당과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저는 공청회를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p>
○○○	<p>○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단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느정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p> <p>○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는 다른 시민단체나 아니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 못할 경우에 의회에서 못할 경우에는 다른 견제나 감시 장치로 충분히 그거를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p> <p>○ 그리고 제가 이 자료 심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조례 현황 그다음에 현황 등을 살펴봤을 때는 다른 시도 광역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가고 있어서 이게 공무원보수인상률 수준에서 이걸 인상하는 거에 공청회를 굳이 열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p> <p>○ 이것도 지금 아마 다른 위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기때문에 아마 저희도 아마 계속 논의가 반복될 것 같아요.</p> <p>○ 그래서 이거를 투표에 붙여서 처리를 하던가 그렇게 하는 게 좀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좋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p>
위원장	<p>○ 네 ○○○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p> <p>○ 이게 공무원보수인상규정이 1.4%로 봤을때는 월정수당이 우리 지난 번에 논의했는게 거기서 1.4%인상하니까 연간으로 56만원 정도가 되고 월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런액수인데 글썄요 여기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각 안에 찬반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p> <p>○ 그렇습니다. 1.4%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1.4% 이상 할 것 같으면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아마 몇 분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p>

○○○	<p>○ 지난번에 1.4% 밑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건 결정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4%에서 인상률을 1%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동결한다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해야될 사항이고 지금 방금 얘기하는 거는 1.4% 밑에서만 이제 공청회를 할지 안할지만 거수로 결정하면 될거 같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해볼만하다 이런 의견입니다.</p> <p>○ 아까 우리 시민단체가 이걸 평가한다하시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로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할때에는 객관성이 없을수도 있고, 또 여러사람이 입을 된다면 자기 입장에서 다 다르거든요.</p> <p>○ 그럴 바에는 대구시가 주최하는 이런 데는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서 결과로 나온 부분이 의회가 받아들이기도 더 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p>
○○○	<p>○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를 그러니까 이거에 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의정 활동에 대한 뭔가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단체라는 학계라든가 그런 데에서 충분히 인 상과 관련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청회에서 그걸 할 필요가 있냐 일단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대로 이게 첨예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한 몇 시간 갈 것 같아요.</p> <p>다들 의견도 있고 하시니까 차라리 그냥 거수로 처리를 하고 그냥 빨리 다른 안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p>
위원장	<p>○ 그러면 여거시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p> <p>○ 공청회를 하는 걸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세분입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안하겠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겠습니다. 여섯분입니다.</p> <p>○ 이거는 정식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해서 위원님들은 주민의견수렴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p>
의협위원장	<p>○ 제가 정리 잠깐만 해드릴게요</p> <p>○ 1.4% 공무원 보수율 인상률이 1.4% 이내인 건 이미 지난번에 결정났고요. 이번에 1.4% 이내이지만 공청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셨는데 세 분이 공청회를 하자고 하셨고 여섯분이 공청회를 하지 말자고 하셨기 때문에 1.4% 이내에서 공청회를 안 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p>
위원장	<p>○ 주변 의견 수렴에 찬성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 반대하시는 분이 여섯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p> <p>○ 그러면 다음 안건의 심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p>

	<p>○ 다음으로 이제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정수당 지급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p> <p>○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차 회의 시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내에서 인상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다면 금년도 대구시의원 월정수당은 월 338만 9330원이며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적용하면 내년도 월정수당은 343만 6780원이 됩니다.</p> <p>이렇게 되면은 4만 7450원의 인상 효과가 있으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56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p> <p>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타시도의 월정수당 결정 진행 현황과 대구 시의회의 제출안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	<p>○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자료에서 지금 7페이지에 월정 수당 결정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8페이지에는 경기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강원이 매년 보급 인상률만큼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 안이 논의 중인 거예요?</p>
정책기획관	<p>○ 말씀드리면 저희가 7페이지 8페이지에 지자체 이름 쓴 거는 이제 지난 회기 4년 전에 이 시도에서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했다고 참고로 말씀을 적시를 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p> <p>○ 예를 들어서 보수 인상률 내외로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4년 동안 보수 인상률대로 그대로 하자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격년 단위로 보수 인상률을 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수 인상률 2분의 1 만큼 매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또 격년 단위로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p> <p>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참고하실 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이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는 게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p>
○○○	<p>○ ○○○입니다. 아까 전에 의회협력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있지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같이 볼 수 없는 내용입니까?</p>
정책기획관	<p>○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자체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p>
○○○	<p>○ 제가 보기에 어떤 기준이라도 논의를 해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마는 오늘 회의가 아니라도 대구시의 회의를 해보면 이런 것들은 바쁘기 때문에 따라 가야한다, 이런 거는 우리 대구가 제일 빨리해야한다고 얘기하고 그때마다 그렇게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것 같아서 좀 난처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면 저는 앞서 지난 회의때 1.4% 인상을 주장했습</p>

	<p>니다. 주장한 이유는 우리가 1.4%를 오르면 원래 한 4만 7천원정도 오르고 연 한 57만원정도 오른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1.5%, 0.1%를 보태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4%를 결정을 했습니다.</p> <p>밑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의 어떤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수준이나 전문성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p> <p>○ 그리고 지금 얼마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될지 초창기에는 제가 1.4% 이상을 해서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의회의 의정 활동을 앞으로 남은 한 3년 10개월 정도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 드린 거고 지금 1.4% 이하로 다수가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울산 사회 동결 이걸로 충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p> <p>○ 어차피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시니까 굳이 우리가 주민 여론 수렴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의 우리 수준으로 물론 평가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동결하는 부분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p>
<p>위원장</p>	<p>○ 예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부탁드립니다.</p> <p>○ ○○○님</p>
<p>○○○</p>	<p>○ 이거 제가 좀 여쭙보고 싶은 건데, 제가 시비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이거 의회에서 보내온 자료인 것 같은데 약간 의문이라서</p> <p>○ 이게 결정 관련해서 여기 적혀 있는 거 통합신공항이나 취수원하고 군위군 행정 편입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시의회에서 이게 어떻게 관여하거나 움직여야 되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집행부에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게 통합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행정구역 편입 이런 거는 국책 사업이나 국가 단위에서 움직이는 거지 이게 시의회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가요?</p>
<p>정책기획관</p>	<p>○ 제가 말씀드리면 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데 통합신공항의 어떤 실제 추진은 집행부에서 합니다.</p> <p>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 국회에 지금 통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치적인 영역이라 시의원들도 이제 대구를 위한다는 측면 집행부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공항 특위도 얼마 전에 구성했습니다.</p> <p>○ 의회에서 그래서 특별법 통과나 그다음에 특별 통과 이후에 관련 절차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시고 취수원 다변화 부분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의회에서 맑은 물 하이웨이 안동시와 안동댐 물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한다는 성명서 발표 그리고 이제</p>

	<p>특위를 구성을 해서 아마 이제 환경부나 이런 쪽으로 설득하는 작업들 그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합니다.</p> <p>○ 그리고 주요한 어떤 그런 어떤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면서 중요한 그런 것들이 시의회가 같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종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더 이제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일이 더 많아진 거라고 볼 수도 있죠.</p>
○○○	<p>○ 네 회의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 저는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님하고의 의견이 비슷하거든요.</p> <p>○ 아까 말씀하신대로 월 4만7450원으로 1년에 56만 원 오른다고 해도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32명에 1,500만원 1,700~1,800정도 되는데 금액이 1.4% 굳이 올린다고 시의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럴 것 같지 않고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재정 자립도라든가 아니면 인구 유출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 했을 때는 그냥 저도 동결이나 가는 게 0.7% 반 올리는 것보다 그냥 동결로 가서 처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 지금 월정 수당을 한 340만 원 정도 받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p> <p>그런 차원에서 좀 더 모범적인 차원에서는 동결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p>
위원장	○ ○○○님은 동결하는 결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	<p>○ 저도 아까 ○○○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당면해 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금 본청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p> <p>○ 이게 언제 25년인가요. 그때 지금 저쪽으로 가는 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 또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가 여러 재정을 쓰고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 그러면 한달에 4만 7천원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알려졌을 때 사실 대부분 보통 시민들은 4만 7천 원을 더 받는다는 사실보다 저 시의원들 또 1.4%씩이나 더 받아 가는구나, 이 대구가 수십 년째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시청을 이전하니 마니하고 공항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대외적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아까 ○○○님 말씀처럼 모범적으로 동결하는 게 좀 더 상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p>
위원장	<p>○ 우리 ○○○님도 동결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p> <p>○ ○○○님하고 ○○○님도 말씀 한번 보시죠</p>

○○○	○ 일단 지난 회의에서 2년 2년 단위로 잘라서 우리가 인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있고 그래서 4년을 동결한다 이런 것보다 2년 단위로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2년단위로 동결을 한다. 그러면 ○○○님은 4년을 동결하자는 말씀이신겁니까?
○○○	○ 4년 동결을 할지 아니면 1.4%내에 할지 의견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걸 4년으로 갈지 2년을 갈지인데 저도 지금 방금 ○○○님 말씀해 주신대로 우선 2년은 동결하고 2년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 참고로 말씀드리면 1.4%라는 건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1.4%이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적용되는 거고요. 만약 내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지금 이제 제일 좀 경기가 어려운 게 공무원 보수가 동결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이것도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1.4%를 이제 가지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라는 거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	○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 있습니다. IMF때 동결되었습니다. ○ 우리가 예측을 할수 없지만 제가 그냥 참고로 1.4%를 가지고 생각하셔서
○○○	○ 그렇다고 매년 그렇게 인상되는 건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24년은 일단 동결을 시키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그 상황을 보고 결정을
의회협력팀장	○ 저희가 전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번에 4년을 같이 결정해야 됩니다. 2년 이후에 다시 의료비 심의회를 열 수는 없습니다.
○○○	○ 그거로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동결이면 그게 이제 결정 동결이든 뭐든 결정이 됐으면 그거를 2년에 적용할지, 격년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안을 그렇게 순차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잖습니까 ○ 저는 추가로 좀 말씀드리는데요. 대구시의회가 이제 민선 8기 정책을 그대로 수용해서 좋은 나쁜든 간에 다 의결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금을 통합하는 것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모든 목적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부분에 지금 시의회가 다 동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4년 동결을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p>○ 지금 가결됐는 데가 부산하고 세종이 있는데 보면 세종은 4년간 100프로 세종이 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3491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부산은 우리 보다 76만 원 높은데 일단은 1년차는 1.4%지만 내년부터는 2,4년 차는 동결하고 3년 차에만 100% 인상할 수 있는데 부산을 따라가자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p> <p>○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대구시를 보면 2분의 1씩 그것도 몇 년 동안 격년으로 인상을 했어요.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인상률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산같이 우리 또 1년차는 1.4% 인상되지만 2년차, 4년차는 동결을 하고 3차년에 100% 왜냐하면 물가도 오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4년을 또 동결하기보다는 2년차, 4년차는 동결하고 3년 차는 100%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이 타당하지 않겠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4년 동안에 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에.</p>
위원장	○ 아니 근데 ○○○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일 년 차는 어떻게요?
○○○	<p>○ 1년차부터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1.4% 인상이 결정이 되고, 2년차와 4년차는 동결</p> <p>○ 그러니까 1,3년은 올리고 2,4년은 동결</p> <p>○ 3차는 100% 인상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부산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p>
○○○	○ 보수인상률 100%가 어떤의미인지?
정책기획관	<p>○ 그래서 이제 그게 전년도를 규정하거든요.</p> <p>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수 인상률 100%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보수 인상률이 없으면 그게 100%가 없는 거죠.</p> <p>예 그렇게 그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보수 인상률이 100%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3년 차에 보수 인상을 100% 한다 하더라도</p>
○○○	○ 이 경우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 근데 지금 진행을 해보니까 지금 이거 지금 회의 순서도 그렇고 내년도거를 인상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그걸 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동안거를 정하는거지 그렇게 이 회의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나가니까 안 되고 일단 내년도거부터 일단 동결할 것이냐 어떻게 인상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정리하고
○○○	<p>○ 지금은 위원장님 진행이 맞는데요. 왜냐하면 1.4%를 이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동결부터 1.4%가 해당이 되잖아요.</p> <p>그래서 동결할지 1.4% 할지 여기 50%도 있고 그래서 0.7%로 할지 이걸 우리가 결정하자는 얘기고 여기 참고로 21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보수인상률이 7년에 걸쳐서 있습니다.</p>

<p>○○○</p>	<p>○ 제일 많이 났을 때가 2015년은 3.8% 제일 적게 났었을 때가 2021년에 0.9% 이렇게 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률이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떤 반발도 거세고 특히 9급공무원은 최저 생계비 정도로 어떻게 생활하나 이런 그래서 계속해서 임금 인상 요인들이 물가도 오르고, 정책관이 동결하면 똑같이 동결한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좀 이상적인 거 있어요.</p> <p>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 어떻든 간에 1.4%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내년 앞으로 사실 공무원들을 최소한 1.4%보다 더 올라야지 되거든요. 결국 재정문제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예측하건데 이 통계로 본다면 0.9%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p> <p>○ 그리고 지금 내년도 인상률이 1.4%도 아마 최소 단계인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2%, 3%, 4% 이렇게 오르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여지다. 왜냐하면 0.9%, 1.4%밖에 2년간 안 올랐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만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누적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긴축 재정을 하더라도 이 비율 이하로 떨어질 일은 없을 거고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p>
<p>위원장</p>	<p>○ 예 그리고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인데 또 타 시도의 어떤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의 의정활동의 역할도 있는데 동결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의견이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시는데 일단 2023년도에 대해 가지고 1안을 동결할 것이냐 동결이 있고, 그다음 2안은 1.4% 인상 그대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안 되면 1/2 줄여가 0.7%로 인상할 것이냐 이렇게 일단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동결이 만약에 3분의 2가 나오면 그대로 통과되고 그다음에 1.4%도 이게 3분의 2가 안되면 안되고 0.7도 안되면 안되고 그럼 다시 이제 빼고 2개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3분의 2가 나오는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니까 자꾸 타시도를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끝이 없어요.</p> <p>○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2023년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의정 심사위 활동이 사실은 1년입니다. 1년인데 오늘 2차 회의에서 해가지고 결정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우리 의정활동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상실됩니다.</p> <p>○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것으로 거수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9분이 계시는데 동결에 찬성하시는 분을 한번 묻고 그다음에 내년도 공무원 1.4% 인상이 돼서 찬성하시는 분 묻고, 1.4% 많다 이분의 일 했으면 좋겠다. 0.7 해가지고 1 2 3안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봐서 이게 3분의 2가 안 되면 다시 빼고 2개를 가지고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p>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맨 처음에 1안 동결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분이죠?</li> <li>○ 그다음에 내년 초에 1.4%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5분 근데 0.7은 자동으로 없네요. 그러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래서 사실 이거는 2,3,4년차까지도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면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게 만약에 1.4%를 저는 1년 차 때 한다면 뒤에 게 또 달라질 수 있고 만약에 앞에 걸 동결을 하면 저는 이게 옵션이 뒤에 달라질 수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서</li> <li>○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1년 차 때 동결하면 한 3년 차 때는 100%로 하든가 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13은 동결하고 24는 올리고 이런 식으로</li> </ul>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첨예한 난제 과제가 될 수 있는데 동결 4, 1.4% 5명이 나왔는데 음료수 한 잔 하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li> </ul>
<b>&lt;10분간 정회&gt;</b>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결하고 1.4%가 5대 4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묶어가지고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도 거를 합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1안은 매년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이 1안이 되겠습니다.</li> <li>○ 그 다음에 2안은 매년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 인상하는 걸로 2안을 하겠습니다.</li> <li>○ 그다음에 3안은 격년으로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겠다. 이걸 3안으로 합니다.</li> <li>○ 그다음에 4안은 격년으로 보수 인상률 2분의 1만큼 인상하는 것에서 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안을 제시를 합니다.</li> <li>○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4년 2024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의 적용할 걸로 해서 결론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깐만요. 이거는 아까 우리 투표했는데 4대5로 나는 부분에 동결 내용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결을 2년간 하고 2년 후에는 보수인상률 100%로 올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동결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li> </ul>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년인상이 사실상 동결의견이 포함이 된 겁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거는 문제는 내년도에도 아까 동결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의견은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li> </ul>
정책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럼 일단 그렇게 결정해서 격년을 하고, 내년부터 격년을 할 건지 그거는 다시 결정하시면 돼요</li> </ul>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님 말씀을 충분히 우리 받아드리겠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면 일단은 제시한 우리 받은 일단은 1안은 매년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이 1안입니다.</li> <li>○ 그다음에 2안은 매년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만큼 인상하는 것이 2안</li> <li>○ 그다음에 3안은 격년으로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이 3안</li> <li>○ 4안은 격년으로 보수 인상률 1/2만큼 인상하는 걸로 해서 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습니까 1 2 3 4</li> </ul>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럼 이걸로 1 2 3 4 안을 거수로해서 하겠습니다.</li> <li>○ 3분의 2가 안 되면 또다시 이제 이 안을 두 개를 가지고 다시 또 찬반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li> </ul>
○○○	○ 5번에 있잖아요. 4년 동결을 우리 좀 더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번에는 4년 동결, 동결 좋습니다.</li> <li>○ 그렇네요. 그러면은 1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매년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것이 1안이고, 2안은 매년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만큼 인상하는 것이 2안, 3안은 격년으로 보수 인상률 만큼 하는 것이 3안, 4안은 격년으로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만큼 인상하는 거에 투표하는 것이 4안, 5안은 4년 동결입니다.</li> <li>○ 그러면 위원님들은 이 중에 한 개를 택해서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고 손 들어주십시오.</li> <li>○ 아무도 없습니까?</li> <li>○ 그다음에 2안 매년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만큼 인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li> <li>○ 3안 격년으로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4안? 5명이네요</li> <li>○ 그 다음 4안 격년으로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만큼 인상하는 거에 투표했으면 하는 거 4안?</li> <li>○ 그러면은 동결했으면 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li> <li>○ 저는 사실은 못 했는데 3안에 저는 찬성합니다. 3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6분, 동결에 찬성 3분, 6 대 3이 나왔습니다.</li> <li>○ 그러면 우리 회의에서는 3안 격년으로 보수 인상 만큼 인상하는 걸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3안 격년으로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걸로 채택이 됐습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면 13을 할건지 24를 할건지 그거를 거수를 해서 정하시는게</li> <li>○ 13으로 격년을 하는데 13으로 할 건지 아니면 24로 이거를 해서 보수인상률 만큼 올릴 건지 그니까 내년을 동결할 건지 아니면은 2년 차를 동결할 건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li> </ul>

<p>위원장</p>	<p>○ 그게 또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2개안을 가지고 또 또 거수를 하겠습니다.</p> <p>○ 1안은 2023년 2025년을 동결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2026년을 인상하고 그다음에 2안은 2023년하고 2025년을 1/2 인상, 그다음에 2024년 2026년은 동결 이 두 안을 가지고 이렇게</p>
<p>위원들</p>	<p>○ 아닙니다. 헛갈리신거 같은데</p>
<p>위원장</p>	<p>○ 완전히 무슨 고등 수학보다 어렵습니다. 헛갈립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1안, 2안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p> <p>○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하는데 1안은 2023년도와 2025년도는 동결을 하고 2024년도 26년도는 인상 100% 인상하는 것이 1안입니다.</p> <p>○ 그다음에 2안은 2023년도, 2025년도는 인상을 하고 2024년도, 2026년도는 동결 이 둘 중에 이 위원님들이 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p> <p>○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안이 2023년도 2025년도의 동결 그다음에 2024년도 26년도는 100% 인상이 되죠.</p> <p>○ 그다음에 2안은 2023년도 2025년도는 인상, 2024년도 2026년은 동결, 두 개 안 중에 한 개를 위원님들이 거수해 주시면 됩니다.</p> <p>○ 그러면 1안 찬성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7분</p> <p>○ 예 2안, 2분</p> <p>○ 위원님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결정해 주신 거를 정리하겠습니다.</p> <p>○ 그러면 우리 대구광역시의 의정비 우리가 낸 1안 2023년도와 2025년도는 동결, 2024년도와 2026년도는 100% 인상하는 걸로 해서 월정수당 지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p>
<p><b>&lt;의사봉 3타&gt;</b></p>	
	<p>○ 이게 또 10월 내로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음에 또 우리가 회의할 시간도 없고 오늘 감사드립니다.</p> <p>○ 위원분들 그러면 그거는 방금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우리가 크게 논의할 거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보조 활동에 가는 비용 보전 지급 경비입니다.</p> <p>○ 이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어서 전국 광역 의회가 동일하게 연간 1800만원, 매월 15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위원님들께서 다른 별도의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의정 활동비에 대해서</p>

○○○	<p>○ 저는 이거 18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도도 이렇게 정했다니까 그걸 갖고 1,750만원 하기도 그렇고, 그죠? 또 1,700만원 하기도 그렇고 1,800만원 가는 건데</p> <p>○ 이 기준을 보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좀 달아서 의회로 이렇게 회부할 때 정말 의정 활동하는 게 정말 의외의 꽃인데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좀 우려하는 부분과 기대하는 부분들을 좀 의견을 좀 달아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p> <p>○ 그냥 우리가 결정을 해서 금액만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좀 기대하는 측면들을 좀 담아서 의견을 다는 것도 괜찮습니까 가능합니까?</p>
의회협력팀장	<p>○ 저희가 이 이제 이 회의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됩니다. 회의록 자체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전달될거예요</p>
○○○	<p>○ 회의록 공개하는 거와 별개로 우리가 의회에 결정통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보는 눈이 되게 많다는 걸 좀 의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결정하는 데 고차원적인 수학도 했었고 그러한 내용을 좀 담아서 의회에 전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p> <p>○ 전체 금액에는 이의가 없습니다.</p>
위원장	<p>○ 위원님 말씀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p> <p>○ 사실은 1,800만원 이걸 전국적으로 정해졌지만, 이만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정활동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좀 더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으십니까?</p> <p>○ 의견이 없으시면 법령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는 만큼 기존과 동일하게 대구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은 연간 1,800만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p>
<b>&lt;의사봉 3타&gt;</b>	
위원장	<p>○ 그럼 담당공무원이 의결서에 위원님들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b>&lt;폐회 및 마무리인사&gt;</b>	
위원장	<p>○ 오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에 의견을 모아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p> <p>○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년도 건승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